

# 1970년대 대중운동과 북한 사회 : 돌파형 대중운동에서 일상형 대중운동으로\*

정영철(브리티시 콜롬비아대학교 방문교수)

## 1. 서론-북한의 70년대란 무엇을 말하는가?

북한의 1970년대는 한마디로 ‘제도화의 시기’이다. 1948년 국가 건설 이후, 67년까지가 사회주의적 개조와 공업화의 추진 그리고 수령제 정치체제의 형성을 위한 전반기에 해당된다면, 70년대는 이의 사상적·물질적 토대를 제도화하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혁명전통으로 확고히 자리하게 되고,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와 절대화가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제기된 사상적 과제는 수령제 정치체제를 뒷받침할 이데올로기의 확립과 이의 재생산-주체사상의 체계화와 역사 다시 쓰기 등-이었으며, 조직적 과제는 수령제 정치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령제 관료체제’

---

\* 이 논문에 훌륭한 심사평을 해 주신 익명의 두 분께 감사를 드린다. 훌륭한 심사평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의 탓임을 밝힌다.

의 형성과 강화였다. 한편, 1970년대는 북한 경제의 새로운 방향전환이 모색되던 시기였다. 자력갱생의 원칙 아래 자립경제를 건설하던 북한은 외연적 성장의 한계 속에서 점차 내포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전 주민을 수령제의 요구에 맞게 일사분란하게 조직하고, 수령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조직, 사상 사업에 광범위하게 동원해야 했다. 이들의 동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당 조직체계를 통한 의식화와 조직화의 전개였으며, 다른 하나는 광범한 대중을 하나의 사업에 동원하는 방식이었다.

이 글은 1970년대의 북한 사회가 떠안았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중운동의 전개와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김정일식 대중운동’의 특성과 그 성과 및 한계 그리고 북한의 대중운동이 천리마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70년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대중운동의 변화를 ‘돌파형 대중운동’에서 ‘일상형 대중운동’으로 규정할 것이다. 또한, 1970년대에 벌어진 대중운동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성’보다도 당의 ‘위로부터의 지도’가 더욱 강조되었고, 이는 당이 모든 사회를 직접 조직·지도하게 되는 구조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김정일의 ‘대중적 지도자 만들기’를 위한 토대 구축의 과정이었음을 주장할 것이다.

## 2. 북한 대중운동의 특징과 대중동원의 정치학

### 1) 북한의 대중운동과 그 특징-핵심, 모범, 속도

북한에서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

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혁명운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대한 근본원칙”이라고 규정된다.<sup>1)</sup>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현실에서 대중을 당 정책 관철에로 동원하는 군중운동, 대중운동의 형태로 표출되게 된다. 북한이 군중노선의 관철을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는 이유는 노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현실적 조건과도 특히 관련된다. 즉, 당이 정권을 잡으면 명령식, 행정식 방법으로도 일정하게 군중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며, 이로부터 일부 일군들의 주관적 의사를 아래에 내려보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sup>2)</sup> 이는 노동계급의 당이 정권이 잡은 뒤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폐해이자,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방해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병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는 결국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더욱 강화하는 것, 즉 군중노선의 철저한 실행밖에는 없었다.

북한의 대중운동은 그들이 주장하는 ‘혁명적 군중노선’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혁명적 군중노선은 군중노선과 계급노선의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져있다. 계급노선이란 ‘로동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의 계급적 입장을 확고히 고수해 나가기 위한 로선’을 의미하며, 군중노선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개조하며 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며 대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으며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로선’으로 정의된다. 또한, 계급노선이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의 근본리익을 옹호하는데 있다면 군중로선의 본질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군중로선을 관철하는 것은 로동계

1)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 총서』, 제2권(1985)(서울: 백산서당, 1989 재출판), 28쪽.

2)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 총서』, 제9권(1985)(서울: 지평, 1989 재출판), 74쪽.

급의 당의 혁명적 정도의 근본원칙'이라고 못박고 있다.<sup>3)</sup>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북한의 군중노선은 '인민대중'에 대한 당의 지도와 함께, 그들을 목적의식적으로 당의 주위에 결집시키고, 이를 통해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그들의 다음과 같은 정의에서 군중노선은 결국 그 근본 목적이 노동계급의 이익에 종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북한은 "당이 군중노선을 견지하고 관철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이익을 철저히 고수하고 그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려는 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계급노선을 떠난 군중노선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계급노선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sup>4)</sup> 이처럼, 군중노선의 핵심에 계급노선을 위치시킴으로써 '노동계급의 당'의 지도를 '혁명적 군중노선' 관철의 필수 요구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은 자발성에 기초한 대중들의 혁명적의식을 우위에 둔 모택동형의 군중노선과 구분된다. 즉, 브루스 커밍스가 주장하듯이 모택동형의 대중운동이 '군중으로부터 군중에게로(from the mass, to the mass)'의 형태라면, 북한형 대중운동은 '군중에게로 군중으로부터, 다시 군중에게로(to the mass, from the mass, to the mass)'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sup>5)</sup> 이는 군중노선에 근거한 북한의 대중운동이 대중 그 자체의 자발성보다는 대중에 대한 목적의식적인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군중노선은 전체 인민의 '참여'에 바탕하여 인민들의 혁명적 열의를 높이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체 '인민'이 모두 다 한결 같이 혁명과업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며, 소극분자와 개인주의의 낡은

3) 『백과전서』(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779쪽.

4) 위의 책, 779쪽.

5) Bruce Cumings, "Kim's Korean Communism", *Problem of Communism*, March-April(1974), pp. 28 ~ 29.

현상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군중노선은 ‘핵심군중’ 혹은 ‘기본군중’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천리마운동의 발생은 바로 이런 ‘기본군중-열성노동자’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김일성은 “우리는 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결코 동요분자들의 여론에 의거할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는 지난날의 빈농민들과 고농들의 말을 들어야 하며 도시에서는 로동계급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하여, 핵심계급을 중심으로 군중사업을 전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6)</sup> 핵심에 의거한 대중운동의 추진은 1950년대의 천리마운동에서부터 70년대 추진된 김정일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관철되고 있다. 이는 결국 북한의 대중운동이 갖는 특징 중의 하나가 ‘핵심’에 의거한 ‘위로부터의 지도’를 통해 광범한 대중들을 동원한다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음으로 북한의 대중운동은 그 전개에 있어서 ‘한 점에서 모범을 보여 확산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곧 개별적 지도와 일반적 지도의 결합을 의미한다. 즉, ‘한 점을 뚫고 모범을 창조하여 일반화함으로써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키는 것이다.<sup>7)</sup> 이러한 방식은 김일성의 ‘청산리 정신·청산리 방법’ 그리고 ‘대안의 사업체계’의 창안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모범창조를 통한 확산 전략은 어느 한 지역에서의 집회나 호소문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를 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제2의 천리마 대진군운동’이나 ‘성장의 봉화’로부터 ‘나남의 봉화’까지 이어지는 최근의 대중운

6)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499쪽.

7) 김동익,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 사업방법”, 『근로자』, 7호(1970), 28쪽.

동의 전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대중운동이 단 순히 노력동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상교양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말해 준다. 즉, 모범단위의 창조는 사람들의 자발 적 경쟁과 사상적 각성을 촉구하는 암목적 교양의 과정이며, 이를 확산 시킴으로써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중운동은 정치와 속도의 우위론으로 대표된다. 정치와 속도의 우위는 대중운동이 경제적 위기로부터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과 속도를 우위에 두는 방식이다. 사실, 북한의 대중운동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극복의 열쇠를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와 사상’의 논리에서 찾는다. 따라서 대중동 원의 목적도 경제적 목표달성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사상적 단 련과 정치적 각성에 둔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와 속도의 우위는 ‘김정 일식 대중운동’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속도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상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속도전’의 기원은 1970년 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창작하면서 김정일에 의해 제창되면서 시작되었 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불과 40여 일 만에 시나리오로부터 연출 과 음악 등의 모든 것을 끝낸 말 그대로 ‘속도’전이었다. 김정일에 의 하면 ‘창작에서 속도전의 본질적 요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창작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 나가면서 작품의 사상예술적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속도전은 가장 짧은 시일 안에 량과 질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로 정의된다.<sup>8)</sup> 문학예술분야에서 만들어진 ‘속도전’ 방식은 이후, 북한의 전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모든 사업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sup>9)</sup> 속도전은

---

8) 김정일, “영화예술론”(1973. 4. 11), 『김정일 선집』, 제3권(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3), 368~369쪽.

사상전, 투지전, 섬멸전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사상전이 기본이 되었다. 사상전이란 말 그대로 ‘사상’을 중심에 놓고 모든 일을 해내는 방식이었고, 수령의 사상과 당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을 의미했다.<sup>10)</sup>

이와 같은 북한의 ‘핵심 - 모범 - 속도’를 축으로 하는 대중운동의 전략은 그들이 주장하는 긍정교양 감화방침이나 중심고리전략과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과 맞물려 있다. 북한의 대중운동은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그 형식과 방식에 있어서는 위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북한의 대중운동이 철저히 정해진 기본 규칙과 사업방식에 의거해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과 사업방식은 1970년대 김정일에 의해 본격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70년대가 북한 사회의 제도화의 시기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운동 역시 제도적인 틀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 2) 경제건설과 대중동원의 정치학

북한의 대중운동이 정치와 속도를 우위에 놓는다고 하여, 경제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 북한의 대중운동은 경제사업에서의 당적 지도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거나, 관료주의나 소극주의, 주관주의 등에 의해 경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어김없이 나타났다. 천리마운동이 그렇고, ‘3대혁명소조운동’이 그러하였다. 이는 김정일이 지적했듯이 “경제사업을 떠난 순수한 당 사업이란 있을 수 없으

---

9) 편집국, “수령님께서 밝혀 주신 사회주의 대건설의 휘황한 진군로를 따라 공업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양양을 일으키자”, 『근로자』, 3호(1974), 46쪽.

10) 윤문영·안천훈·손영규, 『주체의 혁명리론의 발전풍부화』(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205쪽.

며 당 사업의 성과는 경제사업에서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했기 때문이다.<sup>11)</sup> 그러나, 북한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추진한 대중운동을 정치논리로 진행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경제적 성과의 평가도 정치적인 논리로 진행한다는 점에서도 정치우위론의 입장에서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대중운동을 '정치화된 대중운동(politicized mass movement)'이라 규정할 수 있다.<sup>12)</sup> 북한의 대중운동이 '정치화된 대중운동'이라는 성격을 갖게 되는 이유는 당의 지도를 통한 대중운동이 철저히 정치적 지도에 의해 진행된다는 사정과 관련한다. 특히, 1970년대의 대중운동은 철저히 당적 지도에 기초하여 처음부터 조직되고, 진행되면서 당의 정치적 지도가 대중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게 되었다. 당의 정치적 지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사상적 요인에 결정적인 의의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대중운동의 정치성이 더욱 강화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혁명의 시기가 지난 후에는 건설의 과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빠른 발전을 선호하게 되고, 그 결과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를 따라잡는(catch-up) 전략을 추구하게 된다. 여기에서 바로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상국가의 건설, 즉 유토피아와 발전의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sup>13)</sup>

---

11) 김정일, "자력갱생의 혁명적 구호를 높이 들고 전당, 전민을 불러일으켜 제 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자"(1978. 1. 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4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7쪽.

12) 이와 유사하게, 보겔은 중국의 모택동형의 관료제를 '정치화된 관료제(politicized bureaucracy)'라고 명명하고 있다. Ezra E. Vogel, "Politicized Bureaucracy : Communist China", Fred W. Riggs(ed.), *Frontiers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Durham : Duke Univ. Press, 1970).

13) R.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in Chalmers Johnson(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1970).



그들은 발전의 종점으로서 유토피아를 상정하게 되고, 따라서 혁명 이후 경제발전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게 된다. 그러나, 발전의 추구는 정치적 인간(political man)이 아닌 경제적 인간(economic man)을 요구하게 된다. 모택동의 급진적 전략이 정치적 인간(紅)의 창출을 위해 경제적 인간(專)을 배제한 전략이었다면, 스탈린의 전략은 정치적 인간보다는 경제적 인간을 우위에 놓는 전략이었다. 모택동은 급격한 대중동원을 통해 발전을 후퇴시켰다면, 스탈린은 대중동원을 통해 유토피아를 후퇴시켰다. 따라서, 대중동원운동이 사회주의의 고만거리인 유토피아와 발전의 와중에서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결국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정책을 통해 전개되는가에 따라 그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북한은 유토피아와 발전의 동시추구를 의도하였다. 소위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의 동시 점령 체제로 불리는 북한의 노선은 소련형도 중국형도 아닌 절충주의적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sup>14)</sup> 북한에게 사상적 요새를 도외시한 물질적 요새의 점령(발전의 추구)은 수정주의를 의미했고, 물질적 요새를 소홀히 한 사상적 요새의 점령(유토피아의 추구)은 현실을 무시한 교조주의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이 양자의 관계에서 사상적 요새의 점령을 중심에 둬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인간에 우위를 둔 경제적 인간의 창출을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간부 엘리트의 조건으로서 충실성을 기본으로 요구하지만, 1970년대를 경과하면서 충실성에 실무적 능력을 요구하는 흥과 전의 결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의 표현처럼, “지난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총을 잘 쏘고 적들과의 싸움에서 용감한 사람이 혁명에 충실한 사람으로 되었다면 우리 당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높은 정치실무적 자질을

14) 장달중, “북한의 정책결정 구조와 과정”,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5권 제2호(1993).

가지고 대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 사람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될 수 있었던 것이다.<sup>15)</sup> 이러한 간부 엘리트의 변화는 대중운동의 과정에서도 과거처럼 ‘머리 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자질을 높여 능률적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었다.<sup>16)</sup> 북한의 대중운동은 바로 이러한 경제적 인간의 창출과 정치적 인간의 창출이라는 동시 추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사업을 위한 대중운동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정치동학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도적 길의 추구는 북한의 대중운동이 끊임없이 좌우의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즉, 북한의 대중운동은 당의 정치적 지도를 중심에 놓게 되지만, 그 단기적 목적으로서 경제적 성과를 추구해야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당의 행정대행과 당의 대중동원에서의 실무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sup>17)</sup> 당의 실무화 현상은 결국 당의 정치적 지도의 약화를 의미하며, 대중동원이 목적성을 상실하고 수단성만을 획득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당의 비대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당의 왜소화를 초래하게 된다. 당의 권한이 강해지는 만큼, 당의 본래적 기능은 점차 왜곡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곧 당의 권력화였다. 대중운동을 통해 집권당의 관료주의를 막으려던 목적이 오히려, 당의 집권당으로서의 권력화를 부추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제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밝힌 것처럼, 집권당의 사

15) 리길송, “당대렬을 불패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 것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필수적 요구”, 『근로자』, 6호(1976), 44쪽.

16) 편집국,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 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자”, 『근로자』 1호(1977), 38쪽.

17) 북한에서 말하는 ‘5분열도’ 현상의 발생은 바로 이러한 현상의 발생이었다. 실무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초기의 혁명적 열정에 기초한 대중운동의 활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게 된다.

업방법과 작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당세도, 관료주의, 주관주의였으며,<sup>18)</sup>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문화혁명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했던 것이다.

### 3) 1970년대 북한 대중운동의 요구 : 과도기 · 제도화기

1967년 수령제 정치체제의 확립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를 강제했다. 그것은 수령제가 일인절대권력체제의 성격을 넘어서서 북한 사회의 집단주의적 발전과 유토피아적 이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수령제는 ‘북한판 유기체 국가’의 건설을 의미했으며,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행동에 기초한 전 사회의 의식화·조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sup>19)</sup> 따라서 수령제 정치체제의 확립은 위로부터의 선포만으로는 불가능했다. 그것은 수령제 정치체제가 정치영역에서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적 단결구조의 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상적인 단결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했으며, 조직적으로도 일사분란한 조직체제를 건설해야 했다. 또한, 수령제 정치체제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역사적 정통성을 창출하고 이를 절대화시켜야 했다. 1970년대의 북한 사회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이것이었

---

18)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3권(서울 : 국토통일원, 1988); 김일성, “당간부 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1971. 12. 2), 『김일성 저작집』, 제26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507쪽.

19) 수령제 확립의 경제적 기원에 대해서는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 관리의 정치(1953~1970)”(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과 이태섭, “북한의 집단주의적 발전전략과 수령체제의 확립”(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을 참조할 것. 북한 수령제의 정치적 구조의 특성에 대해서는 김광용,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을 참조할 것.

다. 정치적으로는 수령에 절대적인 충성을 바칠 간부와 그 후계세대를 육성·발굴해야 했으며, 그에 따른 정치구조, 법적 구조를 창출해야 했고, 경제적으로는 수령의 의도에 따라 경제의 전 분야에서 자력갱생에 기초한 자립경제를 건설해야 했으며, 외연적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방식의 경제성장을 추구하여야 했다. 또한, 문화적으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정통성의 확립과 그의 전 사회적 확산이 이루어져야 했고,<sup>20)</sup> 군사적으로는 ‘당의 군대’에서 ‘수령의 군대’로 군의 체질을 탈바꿈 시켜야 했다. 결국 1970년대의 북한이 당면했던 과제는 바로 수령제 정치체제가 요구하는 전 사회의 의식화·조직화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이를 제도화시키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의 빠른 속도를 지속시키는 것이었다.<sup>21)</sup> 이러한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된 것은 바로 수령의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시키는 것이었다.<sup>22)</sup> 그리고 이를 위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선전과 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다른 한편, 당을 중심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의식화·조직화하기 위한 대중 지도와 동원이 요구

20)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걸쳐 혁명사적지·전적지, 박물관의 건설이 집중된 것은 수령제 확립에 따른 역사적 정통성의 확립과 관련된다. 위의 건설현황에 대해서는 정영철, “김정일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121쪽 참조.

21) 사회주의 건설의 빠른 속도를 지속하는 것은 1967년 갑산파 사건을 거치면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것으로 이 무렵 북한의 적지 않은 경제학자(및 일군)들은 속도보다도 균형에 보다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 노선은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현물동학과 가격동학의 긴장이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참조.

22) 이는 김정일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의 선포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의 제1항은 ‘김일성의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이다.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1974. 4. 14),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되었다. 특히, 지도와 대중의 관계에서 대중운동이 차지하는 역할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 그것은 북한이 추구하는 대중운동이 ‘혁명적 균중노선’의 실현과정이자,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목적으로 한 전 사회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년대의 대중운동은 과거보다 위로부터의 목적 의식적인 지도가 보다 더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sup>23)</sup> 1970년대의 대중운동이 앞선 시대의 그것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지도의 역할에서의 차이인 것이다. 또한, 1970년대의 대중운동은 앞선 대중운동이 ‘경제적 위기 돌파’를 위해서 진행된 것이었다면, ‘일상적 혁명 과제의 실천(사상과 조직)’을 더한 것으로 변모되었다.<sup>24)</sup> 앞선 시기의 대표적인 대중운동인 천리마운동과 70년대의 ‘70일전투’가 ‘경제적 위기 돌파형’의 대중운동이라면,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경제적 목적 외에 정치적 목적을 보다 더 중요시한 대중운동이었고, 사회적 규율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 운동이었다. 이와 같은 변화의 가장 원인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1970년대에 당면했던 북한

23) 북한의 대중운동은 기본적으로 위로부터의 지도와 아래로부터의 자발성의 결합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그것은 과거보다 더 한층 위로부터의 목적 의식적인 지도가 강조되었다. 천리마운동이 ‘위로부터의 지도’ 보다도 ‘아래에서의 핵심 노동자들의 자발성’이 보다 더 강조되고, 이것이 확산된 것이라면, 1970년대의 그것은 처음부터 ‘위로부터의 목적의식적인 지도’가 중심이 되었다.

24) ‘돌파형 대중운동’과 ‘일상형 대중운동’은 1970년대 북한 대중운동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적 개념이다. ‘돌파형 대중운동’은 당면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위기로부터 비롯되어, 이를 해소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었으며, 따라서 생산력 발전과 외연적 성장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모범 사례의 정치적 모델이 형성되며 사회적 경쟁이 확산된다. ‘천리마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상형 대중운동’은 주로는 정치적 위기 혹은 요구로부터 비롯되어, 당 및 국가의 계획적인 지도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일상적 규율의 확립 특히, 당면의 정치·사상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적 규율의 확립과 이에 기초한 생산력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북한의 대중운동은 ‘김정일식 대중운동’의 등장과 함께 ‘돌파형’에서 ‘일상형’으로 변모되었다.

사회의 정치·사회적 과제의 실현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게 된 것과 관련된다. 또한, ‘김정일식 대중운동’이 등장함으로써 당과 국가 즉, 사상과 조직의 장악을 통해 튼튼한 지도력의 기반을 마련해야 했던 사정 과도 관련된다. 결국, 수령제 정치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요구와 후계 체제 구축을 위한 대중적 토대의 마련을 위한 요구로부터 북한의 대중 운동은 1970년대에 김정일에 의해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되고, 그 내용과 목적도 변화되었으며, 정치화된 대중운동으로서의 일상적이고 제도적인 틀로서 고착되어 가기 시작한 것이다.

### 3. 김정일식 대중운동의 전개와 특징

#### 1) 70일전투-경제위기 돌파형 대중동원운동

‘70일전투’는 1974년 10월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당면한 경제 사업의 난관을 김정일이 직접 나서서 풀어 보겠다고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북한은 제1차 6개년 계획(1971~76)을 수행 중이었으며, 74년은 전반기 과제를 마무리하는 해였다. 그러나, 1973년부터 시작한 서방과의 교역 증대와 대외경제관계의 활성화가 오일쇼크 등의 원인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으며, 농업에서의 대풍과는 달리 공업 부문에서는 일부 지표가 엄청나게 미달하고 있었고, 이것이 다른 부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sup>25)</sup> 북한의 표현처럼 ‘여러 가지 걸

25) 한재만, 『김정일-인간·사상·평도』(평양 : 평양출판사, 1994), 117쪽; 당시 공업부문에서의 문제점은 특히 채굴과 수송부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70일전투’를 앞두고 김정일은 ‘전투에서 풀어야 할 중심문제로서 채굴공업, 수송문제와 수출문제’를 지적했다. 김정일, “전당이 동원되어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자”(1974. 10. 9), 『김정일 선집』, 제4권(평양 : 조선로동당출

린 문제와 난관'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sup>26)</sup> 이런 상황에서 당시 후계자로 '내정'되어있던 김정일은 자신이 직접 당 조직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고자 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후계자 김정일의 경제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김정일은 '70일전투'를 조직하면서 74년 4월 본격적으로 전개된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의 채택의, 재접수 사업도 미루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지시한 당 생활총화도 10일당 생활총화로 바꾸면서 모든 당 사업을 '70일전투'로 밀어넣었다. 이는 그만큼 당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심각했음을 말해 준다.

김정일은 '70일전투'를 조직하면서 '70일전투'의 관건은 "모든 당 조직들이 당중앙의 의도를 어떻게 접수하고 전투에 어떻게 달라붙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하였다.<sup>27)</sup> 이는 김정일이 처음으로 전국적인 대중운동을 직접 지도하면서 자신의 지도와 통제에 대한 아래 당 조직들의 접수와 실행 능력을 검증하는 기회로 삼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검증받지 못한 자신의 경제관리 능력을 검증받는 기회로 여겼음을 말해 준다. 특히, '70일전투'는 당 조직이 나서서 행정경제부문 일군들에 대한 일대 사상투쟁을 전개한다는 점에서도 당시 '당의 지도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던 김정일의 행정경제 부문에 대한 지도력의 관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sup>28)</sup> 따라서 과거의 전투형식과는 전

---

판사, 1994), 463쪽.

26) 편집국,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올해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자", 『근로자』 11호(1974), 30쪽.

27) 김정일, "전당이 동원되어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자"(1974. 10. 9), 458쪽.

28) 김정일은 '70일전투'를 조직하면서 "종래의 전투들과는 달리 이번 70일전투는 우리가 직접 틀어쥐고 지휘하며 당 조직들을 발동하고 당 조직들의 힘으로 경제사업을 밀고나가는 전투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번 전투를 통하여 행정경제일군들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성화된 요령주의, 형식주의, 보신주의, 보수주의와 같은 잡귀신들에 된타격을 주려고 합니다……"

혀 다른 ‘당이 직접 지도하는 전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당이 직접 지도하는 전투’는 북한의 중요한 대중운동의 한 형태로 자리잡게 된다.

‘70일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에서 ‘당 및 정무원 지도소조’를 내려보내고 이들에게는 당과 정부의 전권대표의 권한을 주었다. 소조에는 당중앙위원회 비서, 정무원 부총리급까지 포함되었다. 김정일은 당과 정부의 모든 간부들을 자신의 구도와 계획에 따라 배치하고 사업하게 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70일전투’ 기간에 당중앙의 의도를 받아들지 않고 제멋대로 일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사건화하고 문제를 엄격히 세워 투쟁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문제도 보아야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sup>29)</sup>

‘70일전투’는 철저히 김정일의 의도와 그의 직접 지도를 받는 수많은 소조들의 파견을 통해 이루어졌다. 김정일은 전국 2,000여 단위에 1만 1,000여 명의 간부들을 파견하였으며, 이 중 1,350여 명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직접 일일이 검토하여 지도대상과 구체적인 과업까지 주었다. 중앙의 당과 정무원의 실무지들로 총참모부를 담당할 중앙지휘부를 구성하고, 지방에는 전권을 행사할 강력한 지도그룹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이미 활동하고 있던 ‘3대혁명소조’를 합세시켰다.<sup>30)</sup>

한마디로 ‘70일전투’는 후계자 김정일에 의해 기획되고, 전개된 일대 대중동원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 결과 생산이 평균 1.7배 높아지고, 공업생산은 17.2%로 증가했다. 결과는 1974년도의 목표를 초과달성하

---

우리는 또한 이번 70일전투를 통하여 당 조직들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한다면 사회주의 경제건설사업도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합니다”라고 하여 당의 행정경제부문에 대한 사상투쟁(교양)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위의 글, 460~462쪽.

29) 위의 글, 478쪽.

30) 탁 진 외, 『김정일지도자』, 제2부(동경 : 동방사, 1984), 131~132쪽.



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70일전투’는 단기간에 모든 역량을 투여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자원과 노동력의 부담이 크며, 경제의 왜곡을 그만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일부의 경제관료들은 ‘물론 70일 동안 모든 자원과 노동력을 집중하면 특정한 경제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를 70일만 하자는 얘기가’라는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sup>31)</sup> 사실, ‘70일전투’는 경제구조의 변화나 기술혁신을 위한 경제체질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 운동이 아니었다.<sup>32)</sup> 당면한 생산의 과동을 극복하고, 단기적인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단기적인 노동력과 자원의 투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경제의 왜곡현상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경제관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불만스러운 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한이 당면하고 있던 6개년 계획의 실행에서 부딪힌 경제적 난관을 돌파했다는 안도감과 계획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70일전투’에 대한 북한 사회의 평가는 김정일의 경제관리능력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70일전투’는 북한의 여타 대중운동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성과 외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수령과 당중앙에 대한 충실성, 당성을 검열하는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당중앙의 지도에 따라 일사분란한 대중동원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후계자로서의 김정일의 지도력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북한은 ‘70일전투’를 당중앙의 ‘속도전’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sup>33)</sup> 특히, ‘70일전투’는 그동

31) 임영태, 『북한 50년사 2』(서울: 들녘, 1999), 108쪽. 황장엽도 이와 유사한 증언을 하고 있다.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 1999), 230쪽.

32) 이종석은 ‘70일전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의 불균형의 심화와 창의력에 바탕을 둔 내포적 기술혁신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1995), 294쪽.

안 김정일이 집중적으로 지도하였던 선전선동부 역량이 빛을 발하면서 그가 주장하였던 당 사업과 경제선동과의 결합이 정당한 것으로 입증되기도 하였다. ‘70일전투’를 계기로 하여 북한 전역에서는 ‘대경제선동’이 경제건설의 중요한 사업방법으로 고착되었던 것이다.<sup>34)</sup> 이는 ‘70일전투’가 여전히 ‘열정’을 불러일으켜, 대규모로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의 대중운동이었음을 말해 준다.

‘70일전투’를 통해서 김정일은 자신의 경제능력을 검증해 보이는 한편, 전국적인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70일전투’의 결과 그의 생일인 2월 16일이 75년부터 ‘임시휴무일’로 지정되었다.<sup>35)</sup> ‘70일전투’로 하여 그는 서서히 국가 상징을 하나씩 획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 2) 3대혁명소조운동-청년 인텔리의 사회진출과 세대교체

북한을 대표하는 대중운동 혹은 대중지도운동은 ‘3대혁명소조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는 운동 이라기보다는 광범한 대중을 지도하기 위한 대중 지도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 열린 제5차 당대회는 사회주의 공업국가의 선포와 함께 기술혁명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sup>36)</sup>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

33) 편집국, “당의 부름따라 사회주의 대건설전투에서 일어난 대혁신, 대비약”, 『근로자』 1호(1975), 24쪽.

34) 김봉춘, “경제선동은 군중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대중정치사업방법”, 『근로자』 11호(1976), 49쪽.

35) 김정일의 생일은 75년 ‘임시휴무일’, 76년 ‘정식휴무일’로 지정되었고, 82년에는 ‘공휴일’이 되었다.

36) 김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6개년(1971~76) 계획에 대하여”(1970. 11. 2),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3권(서울: 국토통일원, 1988).

계획'의 주요 목표는 기술혁명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3대기술혁명'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단위에서의 '최대투입 - 최소산출'이라는 낭비와 비효율을 퇴치하기 위한 노동행정사업의 강화, 기술적 지도의 강화, 당적 지도의 강화 등 기존과는 다른 지도방법의 일대혁신이 요구되었다. 과거와 같은 외연적 방식을 통한 경제의 발전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간부들에게서 나타났다. 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현시기 간부들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간부들의 정치실무적 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간부대열은 기본적으로 당과 혁명에 충실한 일군들로 꾸려졌으나 그들의 준비 정도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당의 요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형편에 있다"고 함으로써 1970년대가 요구하는 간부의 자질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 간부들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었다.<sup>37)</sup> 그렇다고, 이들을 새로운 신진 간부들로 한꺼번에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사회 전반에 혁명적 열정은 점차 식어가고 관성과 관료주의, 보수주의, 소극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당시의 북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심각했던 것임을 말해 준다. 김일성은 "오늘에야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는 이유는 온갖 결합들이 지금에서야 표면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 동안 간부들의 관료주의적 작풍 때문에 아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보수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다.<sup>38)</sup> 이에 대해 북한은 일대 사상투쟁과 기술혁명을

37)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결론(1970. 11. 12)",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제3권(서울 : 국토통일원, 1988), 257쪽.

38) 김일성,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릴 데 대하여"(1973. 2. 21), 『김일성 저작집』, 제28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175쪽;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

동시에 수행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 진행되었다. 이미, 1971년 6월 김일성은 “청년들은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데서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하며 기술혁신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는 보수주의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이들을 통해 생산에서의 기술 신비주의, 보수주의를 타파하고 기술혁신운동의 중심으로 삼을 것을 암시하였다.<sup>39)</sup>

‘3대혁명소조운동’은 1972년 9월 경공업분야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다음에 73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3대혁명소조’는 단계별로 파견되었는데, 72년 9월에는 경공업분야에, 같은 해 11월에는 철도운수분야에 파견되었고, 73년 1월에는 노력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지도소조가 중요 공장, 기업소들에 파견되었다.<sup>40)</sup> 김정일의 후계자 추대 이후, ‘3대혁명소조운동’은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했다.<sup>41)</sup> 김정일은 지금까지 주로 공업과 농업 분야에 파견되었던 소조원들을 과학, 보건, 교육 부문 등 거의 모든 분야에까지 파견하였고, 지도체제도 개편하여 그동안 공업과 농업 분야를 따로따로 지도하던 체계에서 당중앙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현지의 당 조직과 유리되어 활동하던 ‘3대혁명소조’를 당 조직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 1975년 3월에는 중앙과 도, 시, 군에 있던 ‘3대혁명소조종합실’을 ‘3대혁명소조 지휘부’로 개편하여 ‘3대혁명소조’의 활동을 일

(1974. 3. 7), 『근로자』, 3호(1974), 14쪽.

39) 김일성,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1971. 6. 24), 『김일성 저작집』, 제26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208쪽.

40) 김창성·리준항, 『3대혁명소조운동과 그 위대한 생활력』(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4), 47쪽.

41) 북한의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지인 『근로자』를 살펴보면, ‘3대혁명소조운동’이라는 용어는 1975년 1호에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로동신문』에서는 1973년 10월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로동신문』, 1973년 10월 22일)

괄적으로 지도·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켰다.<sup>42)</sup> 김정일의 ‘3대혁명 소조운동’의 지도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전적인 지원을 보냈다. 김일성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김정일의 지도와 통제에 따르고, 충실한 근위대, 친위대가 되기를 요구했다.<sup>43)</sup> 3대혁명소조는 수령이 파견한 당중앙의 근위대, 친위대였으며 당중앙의 방침을 직접 수행하는 돌격대였던 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주로 청년 인텔리층으로 구성되었으며(약 90%), 당 일군과 정권기관 일군들도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당,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과 근로단체 일군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일군들을 포괄하고 있었으며, 특히 당핵심, 과학기술일군, 청년 인텔리들이 주축이 되었다.<sup>44)</sup> 그렇다고, 이들이 당시 북한이 요구하던 기술혁신을 전면적으로 이룩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김정일에 의하면, 북한의 대학생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우리 당의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혁명적 새세대들입니다. 또한 대학생들은 비록 기술을 깊이는 몰라도 뒤떨어진 기술과 현대적인 기술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해방 후 북한 정권에 의해 길러진 새세대들에 대한 사상적인 신뢰감을 표명하였다.<sup>45)</sup> 이는 ‘3대혁명소조운동’이 비록 당시 북한 경제에 당면한 기술혁신의 과제를 목표로 두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심고리’를 기술 신비주의나 소극주의

42) 사카이 다카시, “김정일의 권력기반 : 그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박한식 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서울 : 동화연구소, 1991), 28쪽.

43) 김일성, “당, 정권,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대건설을 더 잘하여 혁명적 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자”(1975. 2. 17), 『김일성 저작집』, 제 30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95쪽.

44)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에 기초한 3대혁명리론』(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74쪽.

45) 김일성,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1973. 3. 14), 『김일성 저작집』, 제28권, 273쪽.

등의 타파에 힘으로써 정치·사상적인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북한 대중운동의 사상과 정치우위론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초기에 일정한 성과를 내었다. 농촌이나 공장에서 일군들의 주관주의, 경험주의 등이 사상투쟁을 통해서 점차 없어지고, 3대혁명소조를 중심으로 공장, 농촌에서의 기술혁신도 이루어졌다. 김일성은 3대혁명소조에 의해 이룩된 다섯 가지 성과로서 ① 당의 기층조직을 강화하고 당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데 기여, ②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데 기여, ③ 근로자들이 노동을 사랑하고, 국가 재산을 애호하도록 하는 데 기여, ④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는 사상전을 벌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데 기여, ⑤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 속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적 사업작풍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데서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하고 이 운동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46)</sup>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운동의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3대혁명소조운동’도 초기의 열정에서 벗어나 관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식 표현대로 하자면 ‘5분열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5분열도’ 현상의 발생은 곧 대중운동의 실무화를 의미하였다. 관성과 실무적 운동으로 전락한 대중운동은 더 이상 초기의 열정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3대혁명소조’는 ‘당중앙’의 파견원으로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만큼 권력화되기 쉬웠다. 결국 1977년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원으로 나가 있는 당일군과 행정경제일군들 중 책임자인 당 일군으로 한 명씩만 남기고

---

46) 김일성,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1975. 3. 3), 『김일성 저작집』, 제3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108~112쪽; 김일성의 이 연설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본 궤도에 접어들면서 나온 것으로서 이 발언 이후에,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의 지휘체계 등 구조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나머지 성원들은 원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조치했다.<sup>47)</sup>

‘3대혁명소조운동’은 기술혁신의 과제와 낡은 사상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대중운동이었다. 우선, 기존의 1~2명의 지도원이 파견되어 아래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서 벗어나, 적게는 20~30명, 많게는 50~60명의 지도원이 파견되는 대규모의 운동이었다. 또한, 앞선 운동이 며칠간 실태파악에 주력하는 것에 비해, ‘3대혁명소조’는 오래 동안 현지에 머물면서 작업반 단위에게까지 들어가서 아래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지에서 지도하였다.<sup>48)</sup> 다른 한편, ‘3대혁명소조운동’은 자연스런 세대교체의 과정이었으며, 김정일 세대의 북한 사회 한복판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한 운동이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80년대 말까지 대략 17만 명이 참가하고, 이 중 2만여 명이 입당을 하였고, 이중 상당수가 간부로 등용되어 김정일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었다.<sup>49)</sup> 김일성의 표현처럼 ‘3대혁명소조운동’은 세대교체, 간부교체를 위한 대중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sup>50)</sup>

‘3대혁명소조운동’은 달라진 북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즉, 초기 혁명적 열정을 지닌 간부들과 혁명 엘리트에 의한 건설이 이제는

---

47) 김정일, “당정책관찰에서 혁명적 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1977. 11. 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 487~488쪽.

48) 『조선전사 32』(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147쪽.

49) 사카이 다카시, “김정일의 권력기반”, 31쪽; 전영락, “3대혁명소조운동은 3대혁명에 대한 당의 혁명적 정도를 실현하는 위대한 운동”, 『근로자』, 4호(1976), 44쪽; 한편, 1982년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3대혁명소조 출신이 전체 대의원의 20%를 차지하였다. 이는 곧 김정일의 국가기관에 대한 지도권의 확대 및 강화를 의미한다. 이찬행, 『김정일』(서울 : 백산서당, 2001), 607쪽.

50) 김일성은 오스트리아 기자와의 담화에서 “우리는 3대혁명소조에 나가 일을 잘한 사람들을 불러다 간부로 제발하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김일성, “오스트랄리아 작가이며 기자인 월프레드 버체트와 한 담화”(1975. 10. 21), 『김일성 저작집』, 제30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595쪽.

혁명적 열정에 실무적 능력이 보다 더 중시되기 시작했음을 말해 준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혁명 국가(revolutionary state)’에서 ‘혁명 후 국가(post-revolutionary state)’로 변화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혁명 엘리트’에서 ‘관료형 엘리트’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혁명 1세대에서 2세대로의 변화는 곧, 관료형 엘리트의 등장과 이들에 의한 건설이 추진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의 발생은 바로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북한은 ‘관료형 엘리트’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혁명적 열정에 기초한 ‘혁명 엘리트’의 정치적 우위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홍(red)과 전(expert)의 결합이었던 것이다.

### 3) 속도전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김정일식 대중운동의 표본

앞의 ‘70일전투’와 ‘3대혁명소조운동’은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속도전’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1970년대 북한 사회가 요구했던 수령체제 확립을 위한 ‘3대혁명’의 수행과 일상적 규율의 확립을 목적으로 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김정일식 대중운동’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으로서 앞선 천리마운동이 근로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당면한 경제 건설에 매진한 대중운동이라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당위원회와 직접적인 지도에 의해 추진된 당적 운동이자, 사상의식의 변화를 일차적 요구로 한 운동이었다.

우선, ‘속도전’은 문학예술분야에서 창출되어 각 분야로 확산된 운동이었다. ‘속도전’은 대중운동이라기보다는 대중운동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북한의 대중운동은 ‘한 점에서 모범을 보여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속도전’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숨씨’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속도전’은 모든 대중운동의 기본형식으로 일반화되었다. 북한의 매체들은 1974년 연초부터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독려했다.<sup>51)</sup> ‘속도전’의 핵심은 ‘사상전’이며, ‘사상전’의 기본 요구는 수령의 사상과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을 의미했다. 여기에는 김정일식 대중운동이 가지는 ‘사상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명제가 녹아 있는 셈이다. 그리고 ‘사상전’의 결정적 성과는 당의 유일적 지도, 곧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것이었다.<sup>52)</sup> ‘속도전’은 이미 공업과 농업부문에 조직되어 있던 ‘피바다 근위대’, ‘꽃피는 처녀 근위대’가 기반이 되었다. 이들 근위대는 1973년 1월부터 조직되었다.<sup>53)</sup> 이후, ‘속도전’은 ‘70일전투’의 기본 방침이 되었고, ‘70일전투’가 끝나고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으로 규정되었다.<sup>54)</sup> 한편, ‘속도전’은 속도가 높으면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기존 통념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했으며, 따라서 속도전의 요구는 ‘집중공세’였다. ‘70일전투’에서처럼, 모든 당 조직과 근로단체

- 
- 51) 편집국,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 대전설의 휘황한 진군로를 따라 공업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양양을 일으키자”, 46쪽.
- 52) 편집국, “<사상전>은 사상분야에서의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 『근로자』, 4호(1974), 19~22쪽.
- 53) 속도전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1974년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농업부문을 대표한 김학순 대의원은 ‘속도전’ 방침을 받들기 위해 <꽃피는 처녀 근위대> 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김학순, “제5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토론”(1974. 3. 20~25), 국토통일원,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3권(서울: 국토통일원, 1988), 831쪽; 한편, 사카이 다카시는 근위대가 1973년부터 조직된 것을 근거로 김정일의 대중운동 지도의 기원을 1973년 초까지 소급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사카이 다카시, “김정일의 권력기반”, 34~35쪽.
- 54) 김성태, “‘속도전’은 천리마운동을 구현하고 심화발전시킨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전투형식”, 『근로자』 1호(1974), 48쪽.

조직을 동원하여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였던 것도 이와 관련한다.

다른 한편, ‘속도전’이 김정일식 대중운동의 기본 방침이라면, 이 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대중운동은 바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1975년 김정일이 제창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가 나오면서 시작되었다.<sup>55)</sup> 북한에서 ‘3대혁명’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전략적 노선이다. 3대혁명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일컫는 것으로서 1960년대에 처음으로 공식화되어 나타났다. 이후, 1970년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한 물질적·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기본과업’으로 3대혁명이 제시되었고, 73년 9월 노동당 제5기 9차 전원회의 이후 ‘3대혁명’이 고유명사로 사용되었다. 1980년 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선언하였다.<sup>56)</sup> 이어, 1982년 김일성은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하면 공산주의가 된다는 명제로 내놓았다.<sup>57)</sup> 따라서 김정일이 제기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당시 북한이 생각하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중동원 운동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사상개조운동이었다. 또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1976년은 김정일에 의해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 곧, ‘김일성주의화’의 요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무렵이다. 1974년에

---

55)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 건설령도사』(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99쪽 ;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45쪽.

56) 1979년의 한 논문은 3대혁명을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총노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현 시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당의 총노선”, 『근로자』, 4호(1979).

57) 김일성,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1982. 4. 14), 『근로자』, 5호(1982).

공식적으로 선언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는 당시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이 체계화되어 가고, 수령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가면서 가장 중심에 놓인 과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북한의 비철금속생산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검덕광산과 모범 협동농장인 청산협동농장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의 ‘피바다 근위대’와 ‘꽃피는 처녀 근위대’에서 처음 발원하여,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갔다.<sup>58)</sup> 북한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대중적 사상개조운동이며 인민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기 위한 대중적 기술개조운동이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중적 문화개조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59)</sup> 이는 앞선 천리마운동이 생산력의 장성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던 것과 비교하여 일차적으로는 사상의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sup>60)</sup> 또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지도의 방식에 있어서도 앞서의 대중운동과는 구별된다. 천리마운동이 근로단체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공장(혹은 기업소) 내의 작업반별로 이루어졌다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처음부터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sup>61)</sup> 그 규모도 공장이나 기업소 등의 대규모 단위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직화와 지도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3

58)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46쪽; 『조선전사 32』, 268쪽.

59) 김정일, “올해 당 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1976. 1. 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 418쪽.

60) 물론, 천리마운동도 사상혁명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천리마운동은 당시의 북한 경제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동원의 요구로부터 제기되었다.

61)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 총서』, 제10권(1985)(서울: 지평 재출판, 1989), 59쪽.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지도서」를 만들어 내려보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운동을 지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sup>62)</sup> 이는 대중운동을 지도하는 데서 일종의 제도적 틀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차 대중운동이 ‘제도적인 형태’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3대혁명소조운동’의 열기가 관성화된 형태로 시들해지는 상황에서 제기되었다. 북한의 대중운동의 역사는 항상 ‘5분열도’ 현상을 극복하지 못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일부 3대혁명소조는 맥이 빠졌으며, 낡은 사상을 가진 공장, 기업소 일군들에게 동화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부정적 현상들과 날카롭게 투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특히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의 재접수, 재토의 사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sup>63)</sup> 즉, 북

<표 1> 천리마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천리마작업반운동	1. 사상적 기초: 주체사상 2. 목적: 사상, 기술, 문화혁명	1. ‘주체’ 확립의 요구(배경) 2. 근로단체의 직접적인 지도 3. 작업반 중심(소규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1.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배경) 2. 당이 직접 지도 3. 대규모 공장, 기업소 단위 (대규모)

출처: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 밑에 진행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51~53쪽 내용 정리.

62) 김정일에 의한 1970년대의 대중운동 및 대중사업의 특징은 반드시 그에 따른 지도서, 지도요강 등이 내려가고 그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며, 그에 의해 사업을 검열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김정일이 1970년대에 걸쳐 판료들에 대한 행위 규범의 제정과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각 분야를 제도화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도서나 지침서는 사상적 지침서이자, 행동의 지침서였다. 그리고 이 지도서나 지침서는 반드시 각 단위에서 토의하여 사상적 수준에서 접수하도록 하였다.

63) 김정일,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1975. 7. 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 368쪽, 376쪽.

한으로서는 끊임없이 대중들을 새로운 건설에 동원하기 위해 새로운 대중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의 표에서처럼, 천리마운동이 ‘주체’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추진된 것이라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주체확립의 시기를 지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천리마운동은 주체 확립을 위한 사상투쟁의 과정에서 김일성 노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그에게 대중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완전한 주체화의 요구, 즉, 김일성 노선의 전면화와 체계화·일상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가 북한 사회의 수령제 정치체제의 제도화 시기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었던 것이다.

#### 4) 김정일식 대중운동의 특징과 한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김정일식 대중운동은 당의 직접적인 지도에 의해 대중운동이 전개되고, ‘더 크고, 떠 빠르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상전과 기술전을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대중운동과 구분된다. 당이 대중운동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수령제 정치체제의 확립과 김정일의 당 장악이라는 시대적 조건을 한편으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일식 대중운동’이 철저히 사상을 중심에 놓는 사상전의 방식으로 진행된 것과도 관련한다. 즉, 속도전에 따른 사상전의 요구는 당의 정치적 지도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당이 대중운동을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일상적으로 지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한, 김정일식 대중운동은 경제선동이 대중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당 사상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직된 경제선동은 1973년 6월 ‘경제선동대’가 조직되어 재령, 은률, 태탄 광산 등에서 경험을 쌓

은 후, 그 해 11월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서 대규모 경제선동을 통해서 모범을 보인 이후, 전국에 일반화되었다.<sup>64)</sup> 경제선동과 대중운동의 결합은 다른 의미에서 당 사업과 경제사업의 결합을 의미한다. 당적 지도의 한 방식으로서 경제선동은 선전역량의 최대화라는 의미에서 김정일식 대중운동의 ‘집중공세’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북한 대중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 위기에 따른 ‘돌파형 대중운동’에서 ‘일상형 대중운동’으로의 전환이다. 이는 곧 대중운동이 과거의 낡은 제도와 사상적 잔재의 파괴를 목적으로 했다면, 70년대의 대중운동은 낡은 사상적 잔재와의 투쟁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관련한다.<sup>65)</sup> ‘70일전투’가 대표적인 ‘돌파형 대중운동’이라면, ‘3대혁명소조운동’은 ‘돌파형 대중운동’의 일상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일상형 대중운동’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후, 79년에 제기된 ‘숨은영웅따라배우기운동’은 일상형 대중운동이 70년대의 집단주의적 대중운동에서 ‘개별적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운동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sup>66)</sup> 이러한 변화는 북한 사회가 1967년의 수령제 확립 이후에 점차 제도적인 안정기로 접어들었고, 그에 따라 현존하는 제도를 공고화하는 데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정일식 대중운동’은 지나친 사상전예의 정도와 집중에 따

64)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력력』(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44쪽.

65) 천리마운동은 낡은 사상과 낡은 관념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 과정에서 낡은 제도적 유산의 파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도적 유산의 파괴는 생산 기준의 변화, 낡은 생산 기법의 폐지, 생산 조직의 변화 및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에서도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66) ‘숨은영웅 따라배우기’에 대한 수령제 정치체제와의 연관성은 정영철, “김정일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 1967~1982”, 245~249쪽.

른 균형의 파괴 등의 문제를 가져왔다. ‘70일전투’에서처럼, 단기간에 자원과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단기적인 속도에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균형의 측면에서는 파괴를 곁따하였다. 균형의 파괴는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상의 지나친 강조로 인한 사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형성시키기도 하였고, 좌경적인 대중운동의 전개로 인한 균중노선의 파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sup>67)</sup> 이러한 사상전예의 경도와 집중에 따른 균형의 파괴는 대중운동이 근거하고 있는 혁명적 균중노선 그리고 균중사업에서의 좌경화를 곁따할 수밖에 없다. 균중사업에서의 좌경화는 곧 북한 내 복잡한 계층에 대한 좌경적 방침과도 관련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반복되는 복잡한 균중 사업에 대한 교시와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래 단위에서는 사상의 절대화에 따른 경직성과 당의 순결성에 대한 교조적 태도로 인해 좌경적이고, 관문주의적인 현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일은 이러한 경향에 대해, ‘복잡한 균중’과의 사업이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에게도 당에 대한 충실성만 확인되면 당에도 받아들이고, 차별하지 말 것을 지적했지만,<sup>68)</sup> ‘김정일식 대중운동’과 균중사업이 ‘사상의 절대화’와 ‘정치·사상의 우위’에 기초하고 있는 조건에서 쉽사리 이러한 경향이 퇴치될 수는 없었다.<sup>69)</sup>

67) 이 글에서 다루는 대중운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판문점 사건을 계기로 김정일은 균중사업에 대한 좌경적인 오류에 대한 자기반성을 하였다 고 한다.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서울 : 토지, 1999), 79~85쪽.

68) 김정일, “현시기 당 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5. 6. 13),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 352쪽.

69) 복잡한 균중과의 사업은 북한의 문헌과 김정일의 직접적인 언급에 따르면 1985년에 가서야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1986. 1. 3),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5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364쪽. 북한 문헌에서도 1985년 11월에 복잡한 균중과의 문제를 다시금 강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조선로동당사회주의 건설

#### 4. 1970년대 북한 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대중운동

##### 1) 수령제 정치체제의 제도화와 대중동원-후계체제구축의 정치학

1970년대의 북한 사회는 67년 확립된 ‘수령제 정치체제’의 제도화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었다. ‘수령제 정치체제’는 김일성의 ‘인격적 카리스마’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카리스마까지를 포함하게 된다.<sup>70)</sup> 제도적 카리스마의 형성은 김일성의 ‘위대함’만이 아니라 역사적·문화적·사회적 신화의 건설과 그의 전통화가 요구되며, 수령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게 된다. 1970년대의 대중운동은 바로 이러한 요구의 한복판에서 진행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대중운동이 위에서 요구된 과제를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대중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상교양(의식화)과 집단적 조직구조의 창출(조직화)의 대중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체사상의 철학적 체계가 이 시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수령제 사회주의의 사상·이론적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서 ‘사상의식’의 결정적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sup>71)</sup> 김정일에 의해서 정식화된 사상의식의

---

령도사』, 76쪽.

70) 수령제 정치체제를 ‘인격적 카리스마’와 ‘제도적 카리스마’의 결합으로 설명한 논문에 대해서는 정영철, “김일성과 김정일의 리더십 비교 : 수령체제의 구조적 분석과 전망”, 한국산업사회학회 편, 『경제와사회』, 가을호(2002) 참조.

71) 1972년에는 그동안 주체사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사상의식의 결정적 역할이 주체사상의 원리의 하나로 제기되어 설명되고 있다. 편집국,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주체사상의 기초이다”, 『근로자』 12호(1972), 18쪽. 북한은 ‘사상의식’의 결정적 역할에 대한 원리를 ‘당



결정적 역할의 강조는 그가 대중운동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한 ‘속도전’ 방침과 그 중에서도 ‘사상전’의 요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사상전의 요구에 따라 북한은 대중운동의 지도방식을 당적 지도, 곧 정치·사상적 지도를 우위에 놓는 방식으로 더욱 강화시켰다.

수령제 사회주의의 제도적 기반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사상·이론적 제도화이며, 다른 하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었다. 전자가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와 혁명전통의 창출이었다면, 후자는 주석제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헌법과 당적 지도의 체계화였다.<sup>72)</sup> 이 과정에서 대중운동은 김일성주의화의 요구를 실현하는 집단주의적 의식화와 조직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다른 한편으로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인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수령제 정치체제의 제도화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제도화 과정과 결합되어 있었던 것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수령제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행동’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이를 일상화시킨 것이었다.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해 북한 사회는 세대교체와 더불어 김정일 후계체제를 뒷받침할 인적 자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김정일의 당을 통한 북한 사회의 지도와 통제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 이들은 북한 사회 구석구석에 침투하여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과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지시를 중간단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실현하는 역할을 하였다.<sup>73)</sup> 중간단위를 거치지 않고 김일성의 교시뿐만 아니라, 김정일(당중

---

중앙’의 가르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자”, 『근로자』, 7호 (1974), 5쪽.

72) 수령제 사회주의의 제도화 과정과 그 특징에 대해서는 정영철, “김정일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 1967~1982”, 제6장 제1절 참조.

양)의 의도가 직접 하부에 전달된다는 것은 곧 김정일의 북한 사회에 대한 장악과 통제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대중 지도자로서의 이미지가 직접 군중들에게로 침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김정일에게 후계체제의 구축은 위로부터의 권력장악을 넘어선 ‘지도자’, 즉 인격적 카리스마를 확립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인격적 카리스마의 확립은 ‘지도-대중의 결합’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도-대중의 결합, 즉 대중운동은 김정일에게 자신의 권력 정당성과 함께, 대중적 지도자로서의 검증 그리고 카리스마의 창출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의 대중운동은 결국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상·이론적 제도화 및 법적·제도적 통제체제의 구축을 넘어서 후계체제를 위한 사상·이론적·조직적 준비와, 김정일의 인격적 카리스마의 대중적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 2) 경제건설의 외연적 성장의 한계와 내포적 성장의 요구

1970년대의 북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도기에 해당한다. 19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면서 고도성장을 달성한 북한은 외연적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으며, 이에 따라 기술적 혁신과 장비의 현대화 등을 통해 내포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요구에 직면하였다. 1971년부터 시작된 제1차 6개년 계획의 목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산업설비의 근대화화 기술혁명의 촉진’을 기본과업으로 내걸었다.<sup>74)</sup> 또한 1970년대 초반부터 서방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하고 산업설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서방 경제협력의 강화는 역설적으로 수입의 확

---

73) 리기순,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당일군의 참된 일본새”, 『근로자』, 8호(1976), 42쪽.

74) 이찬행, 『김정일』, 446쪽.

대에 따른 무역적자의 누적과 차관도입에 따른 채무 상황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1975년 이후에는 국제적인 신용도의 하락으로 인한 기술과 자본 도입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비록,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제1차 6개년 계획이 1년 4개월 앞당겨 수행되었다고 하지만, 철강과 시멘트, 수송부문에서의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77년을 완충기로 설정할 정도로 경제의 파동과 불균형을 경험했다.<sup>75)</sup> ‘70일전투’는 바로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해진 조치였다. 그러나 ‘70일전투’는 74년도의 단기적인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방식도 외연적 성장전략의 극대화에 다름 아니었다. 문제는 내포적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혁신에 있었다. 북한은 기술혁신의 문제를 사상의식의 문제로 바라보았다. 즉, 경험에 근거한 비과학적 태도, 과감한 기술혁신을 거부하는 소극주의와 기술신비주의, 그리고 이러한 낡은 사상잔재와 과감하게 투쟁하지 못하는 보신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지 않고서는 기술혁신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또한 간부들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과거의 혁명적 열정과 경험에 근거해서 ‘자력갱생’만을 외치는 오래된 간부들로서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기술혁신과 그에 따른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당시의 간부들에게는 요구되는 기술수준과 지식수준의 불일치가 존재했으며, 이것이 1970년대의 북한 경제에서 중요한 장애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sup>76)</sup> ‘3대혁명소조운동’은 바로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발생하였다. 김일성의 표현처럼, ‘온갖 결합’들이 1973년을 전후로 하여 표면에 등장하였고, 그에 대한 사상투쟁과 생산현장에서

75) 철강과 시멘트 부문의 계획 미달성은 여타 다른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자립경제는 내부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고도화한 것으로서 한 부문의 침체는 곧바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76) 김창성·리준항, 『3대혁명소조운동과 그 위대한 생활력』, 12쪽.

의 지도가 시급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은 바로(R. Bahro)가 지적한 것처럼, 관료체제에 의한 위로부터의 지령과 창의성의 고갈로 인한 ‘현실 사회주의’의 문제가 형식주의와 경험주의, 관료주의 등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바로는 일종의 문화혁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관료적 경쟁(bureaucratic rivalry)’이 아닌 노동자의 이니셔티브의 강화이자, 아래로부터의 추동이었던 것이다.<sup>77)</sup>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러한 문화혁명을 스탈린이나 토목동형의 대중운동이 아니라 ‘중도적 길’로서 추구했다는 점이다.

경제건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대혁명소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3대혁명의 본격적인 추진을 집단적 경쟁을 동원한 대중운동으로 전개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와 기술 혁신의 요구를 제기한 것이었다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일상적인 대중운동이었으며, ‘3대혁명’을 전면에 내걸고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각 집단과 단위의 경쟁적 방식으로 진행하였다.<sup>78)</sup> 이러한 방식의 대중운동은 경제적으로 내포적 성장의 추진이 요구되에도 불구하고 외연적 방식을 포기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정치·사상적 우위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곧, ‘경제논리의 정치논리화’였던 것이다. 결국 1970년대의 대중운동은 경제적 성장의 질적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77) Rudolf Bahro, *The Alternative in Eastern Europe*(New York : Schocken, 1981), pp. 377 ~ 453.

78) 흥미로운 점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진행하면서 이를 전쟁관점에서 평가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김정일, “올해 당 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 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1976. 1. 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 418쪽.

### 3) 일상화된 대중동원-제도화된 대중운동

북한에게 대중운동은 경제적 위기의 돌파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선 천리마운동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보다 더 정치적인 목적에 치중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대중운동의 형식도 단기적인 ‘돌파형 대중운동’에서 점차 ‘일상형 대중운동’으로 변화하였다. 사실, 천리마운동의 배경에는 경제건설의 노선을 둘러싼 정파간 정책대립과 경제적 위기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당에서의 논쟁을 접고, 현장에서 직접 노동자들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1970년대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조직적 지도와 통제가 보다 강화되었다. 이는 대중운동이 점차 ‘아래로부터의 창발성’에 근거하기보다는 ‘위로부터의 지도’에 근거하기 시작했음을 말해 준다.

1970년대는 ‘70일전투’와 같은 ‘위기돌파형 대중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과 같은 ‘돌파형과 일상형의 결합’된 대중운동이 동시에 나타났고, 중반 이후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같은 ‘일상형 대중운동’이 자리잡게 된 시기이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천리마운동에서 시작한 북한의 대중운동은 1970년대에 과도적인 단계를 거쳐, ‘일상형 대중운동’으로 정착되었으며, 이후 1990년대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여 다시금 ‘돌파형 대중운동’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에 자리잡은 ‘일상형 대중운동’은 이후 79년의 ‘숨은영웅따라 배우기운동’에서 보다 더 일상화된 생활과 결합된 대중운동으로 등장하게 되고, 1976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돌격대 운동’은 청년들과 과학자들을 생산현장에 직접 파견하는 제도화된 ‘대중운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sup>79)</sup>

북한의 대중운동이 일상적이고 제도화된 대중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1970년대의 북한 사회가 요구했던 제도화된 수령제의 창출과 관련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도방법의 표준화, 주관주의적 지도를 피하기 위한 지도서 및 요강 등을 만들어내면서, 대중운동의 지도적 원칙을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대중운동을 ‘혁명적 열정’만으로 이끌 어갈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다. 마이어(A. Meyer)는 사회주의 국가는 ‘체계건설(System building)’에서 ‘체계관리(System management)’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sup>80)</sup> 북한 역시 1970년대에 건설에서 관리가 보다 중요해진 시기로 진입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대중운동 역시 과거의 ‘돌파와 건설’보다는 ‘제도와 관리’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가게 된 것이다.<sup>81)</sup> 북한의 대중운동이 보여주고 있는 시대적 변화와 특징, 그리고 대중운동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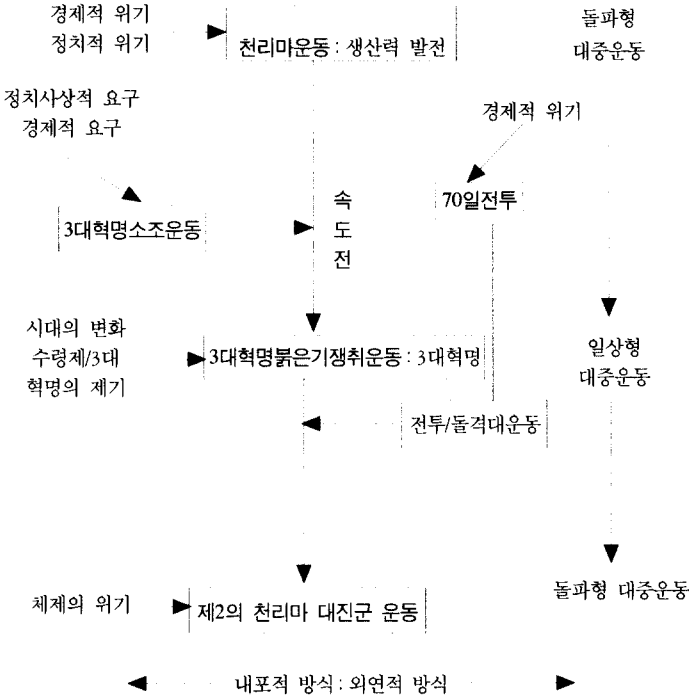
---

79) 북한에서 청년 돌격대 운동은 이미 한국전쟁에서부터 진행되었으나, 1975년 2월 사로청에서 ‘속도전 청년돌격대 운동’이 조직된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75년 ‘과학자 돌격대’가 조직되었으며, 78년부터는 ‘과학자·기술자 돌격대’가 조직되어 생산현장에 파견되었다. 이들 돌격대 운동은 ‘3대혁명소조운동’의 청년 인테리의 사회적 진출과 맞물려 청년들에게 노동 현장으로의 진출과 선도적 역할을 독려했던 운동이었으며, 제도화된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80) Alfred G. Meyer, “Theories of Convergence”, in Charlmers Johnson(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1970), pp. 320, 326.

81) 물론, 북한의 변화를 마이어의 주장 그대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다 더 엄밀하게 평가하자면, 북한은 체계 건설에서 체계 공고화 및 연장된 체계 건설로 진입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영철, “김정일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 1967~1982”, 249~252쪽.

<그림 1> 북한 대중운동의 시대적 변천과 구조



## 5. 결론-요약과 전망

1970년대의 북한 사회는 67년 확립된 수령제 정치체제의 직접적인 역사적 연속지점이다. 따라서 1970년대에 객관적 나선 시대적 요구는 수령제 정치체제의 공고화·제도화였으며, 외연적 성장을 대체할 내포적 성장의 요구, 그리고 후계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의 대중운동은 이러한 요구를 배경으로 해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북한 대중운동의 기본 원칙들이 정립되어 나갔다.

북한의 대중운동은 1970년대를 경과하면서 그 성격과 방식이 구조화·제도화되어 갔다. 과거의 아래로부터의 창발성에 더하여, 위로부터의 지도가 더욱 강조되었고, 당이 직접 대중운동을 지도하는 주체로 변화하였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돌파형 대중운동과 더불어 수령제 사회주의의 제도화를 위한 일상형 대중운동이 동시에 등장했으며, 점차 일상형 대중이 보다 핵심에 놓이게 되었다. 다른 한편, 이 시기의 대중운동은 형식주의와 주관주의, 소극주의와의 사상투쟁의 성격을 띠었다. 이는 결국 북한 대중운동의 정치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3대혁명'의 실현을 위한 대중동원의 정치학이기도 하였다.

1970년대의 대중운동은 김정일 후계자의 대중적 검증의 성격을 갖는 것이자, '대중적 지도자 만들기'의 토대구축 과정이기도 하였다. 김정일식 대중운동은 '더 크고, 더 빠르게'로 특징지어지며, 이 과정에서 속도전이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아 나갔다. 대중운동을 통해서 길러진 젊은 세대들이 김정일 후계체제의 중요한 인적 토대가 되었고, 김정일의 당 지도력 확보 및 국가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

197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의 대중운동은 집단주의적 대중동원의 형태에서 일상적인 삶에서의 개별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으로 발전해가게 되었다.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계속 진행되면서도, '숨은영웅따라배우기운동'을 통해 개별 개인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공산주의적 전형을 보여주기를 요구했다. 제도화된 돌격대, 전투형식의 대중동원과 함께 개인들은 '보이지 않는 강제'에 의하여 항상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갖고 모든 일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바쳐야 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북한 대중운동의 변화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수령제 사회주의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개



인들의 일상적인 삶까지도 점차 규정하는 일상원리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를 대중동원의 형태로 전개했음을 말해 준다.

최근 북한의 대중운동은 체제의 위기에 직면하여, 다시금 과거의 대규모 집단주의적 동원의 형태로 회귀하였다. 바로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운동’으로 대표되는 ‘돌파형 대중운동’의 재등장이었다.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운동’은 ‘경제강국’ 건설을 주창하는 북한이 생산력 발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말해 주며, 대규모 대중동원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규모 대중동원이 갖는 한계와 내부자원의 고갈 등으로 과거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지식과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북한의 ‘경제강국건설노선’에 따라 과거와 같은 외연적 방식의 대중동원이 그 비중은 감소하겠지만, 군대를 중심으로 주체의 단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대중동원과 지금 당장 내부의 자원을 총동원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대규모 대중동원은 계속해서 중요한 수단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 건설령도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 밑에 진행되는 3대혁명 붉은기쟁퀴운동』(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김동익,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키는 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 방법”, 『근로자』, 7호(1970).

김봉춘, “경제선동은 군중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대중 정치사업방법”, 『근로자』, 11호(1976).

- 김성태, “‘속도전’은 천리마운동을 구현하고 심화발전시킨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전투형식”, 『근로자』, 1호(1974).
- 김 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6개년(1971~76) 계획에 대하여 1”(1970. 11. 2),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3권(서울: 국토통일원, 1988).
-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1959. 12. 4), 『김일성 저작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70. 11. 2),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제3권(서울: 국토통일원, 1988).
-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결론”(1970. 11. 12),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제3권(서울: 국토통일원, 1988).
- ,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1971. 6. 24), 『김일성 저작집』, 제2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 “당간부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1971. 12. 2), 『김일성 저작집』, 제2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릴 데 대하여”(1973. 2. 21), 『김일성 저작집』, 제2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1973. 4. 14), 『김일성 저작집』, 제2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1974. 3. 7), 『근로자』, 3호(1974).
- , “당, 정권,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대건설을 더 잘하여 혁명적 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자”(1975. 2. 17), 『김일성 저작집』, 제3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1975. 3. 3), 『김일성 저작집』, 제3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 “오스트랄리아 작가이며 기자인 윌프레트 버체트와 한 담화”(1975. 10. 21), 『김일성 저작집』, 제3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1982. 4. 14), 『근로자』, 5호(1982).
- 김정일, “영화예술론”(1973. 4. 11), 『김정일 선집』,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1974. 4. 14),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전당이 동원되어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자”(1974. 10. 9), 『김정일 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 “현시기 당 사업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75. 6. 13),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1975. 7. 1),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올해 당 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 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1976. 1. 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당정책관철에서 혁명적 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1977. 11. 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자력갱생의 혁명적 구호를 높이 들고 전당, 전민을 불러일으켜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자”(1978. 1. 1),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1986. 1. 3),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 김창성·리준항, 『3대혁명소조운동과 그 위대한 생활력』(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 김학순, “제5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토론”(1974. 3. 20~25), 『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3권(서울: 국토통일원, 1988).
- 김 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당의 총로선”, 『근로자』, 4호(1979).
- 리기순,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당일군의 참된 일본새”, 『근로자』, 8호(1976).
- 리길송, “ 당대열을 불패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 것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필수적 요구”, 『근로자』, 6호(1976).
-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 총서』, 제2권, 1985(서울: 백산서당, 1989 재출판)
- , 『주체사상 총서』, 제9권, 1985(서울: 지평, 1989 재출판).
- , 『주체사상 총서』, 제10권, 1985(서울: 지평, 1989 재출판).
- , 『주체사상에 기초한 3대혁명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윤문영·안천훈·손영규, 『주체의 혁명리론의 발전풍부화』(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전영락, “3대혁명소조운동은 3대혁명에 대한 당의 혁명적 정도를 실현하는 위대한 운동”, 『근로자』, 4호(1976).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 동지 력력』(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편집국,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주체사상의 기초이다”, 『근로자』, 12호(1972).

——,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 대건설의 휘황한 진군로를 따라 공업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앙양을 일으키자”, 『근로자』, 3호(1974).

——, “‘사상전’은 사상분야에서의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 『근로자』, 4호(1977).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자”, 『근로자』, 7호(1974).

——,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 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자”, 『근로자』, 1호(1977).

——,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올해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수령님께 충성을 보고를 올리자”, 『근로자』, 11호(1974).

——, “당의 부름 따라 사회주의 대건설전투에서 일어난 대혁신, 대비약”, 『근로자』, 1호(1975).

탁진외, 『김정일 지도자』, 제2부(동경: 동방사, 1984).

한재만, 『김정일-인간·사상·정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2차 자료>

김광용, “북한 수령계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1970)”(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사카이 다카시, “김정일의 권력기반: 그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박한식 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서울: 동화연구소, 1991).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현물동학과 가격동학의 긴장이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1995).

이찬행, 『김정일』(서울: 백산서당, 2001).

이태섭, “북한의 집단주의적 발전전략과 수령체제의 확립”(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임영태, 『북한 50년사 2』(서울 : 들녘, 1999).
- 장달중, “북한의 정책결정 구조와 과정”,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5권 제2호(1993).
- 정영철, “김일성과 김정일의 리더십 비교 : 수령체계의 구조적 분석과 전망”, 한국산업사회학회 편, 『경제와 사회』, 가을호(2002).
- 정영철, “김정일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 1967~1982”(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서울 : 토지, 1999).
-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 한울, 1999).
- Bahro, Rudolf, *The Alternative in Eastern Europe*(New York : Schocken, 1981).
- Cumings, Bruce, “Kim’s Korean Communism”, *Problem of Communism*, 1974 (March-April).
- Lowenthal, R.,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in Charlmers Johnson(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1970)
- Meyer, Alfred G., “Theories of Convergence”, in Charlmers Johnson(ed.), *Changes in Communist Systems*(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1970).
- Vogel, Ezra E., “Politicized Bureaucracy : Communist China”, in Fed W. Riggs(ed.), *Frontiers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Durham : Duke Univ. Press, 1970).